

01 교회소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2 생명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어려움도 만나도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한다.

03 세계 인(in) 만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게임과 인터넷, 술과 마약에 빠져 어둠 속을 헤매다가 주님의 은혜로 행복을 찾은 세계 속 만민 성도들의 이야기.

04 간증

“제 삶이 재창조됐습니다”

아프고 불안한 인생이었으나 참 목자를 만나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신형철 장로 간증.

만민뉴스

제673호 2015년 2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재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성경이 참임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 권능의 단물, 만민찬양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재창조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재창조의 권능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만물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권능을 말한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와 같이 오늘날에도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단물로 변해 믿음으로 사용할 때 치료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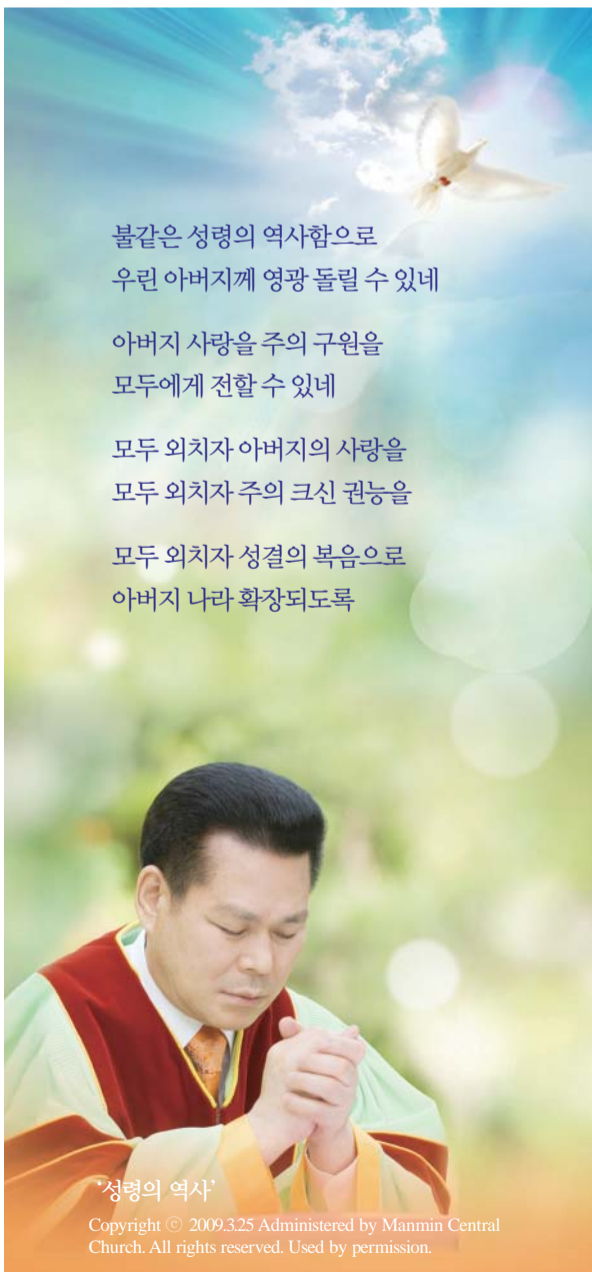
또한 출애굽기 16장 13~14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신 것처럼, 여름이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잠자리 떼가 만민의 성도들에게 친근히 날아와 앉아 행복과 사랑을 느끼게 한다.

이에 사도행전 2장 43~47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사와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함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서로 구제하며 뜨겁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더욱이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사도 바울의 몸에서 취한 손수건을 통해 희한한 능이 나타난 것같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3면 참조).

성경의 역사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명기 31장 19절과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해 지켜 행하도록 모세 선지자를 통해 노래를 지어 주신 일이다. 우리 교회에도 2009년 2월 3일 ‘주님의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기

시작하셨다. 성도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감동의 찬양을 주신 것이다. 이에 국내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름다운 천국 소망이 더해져 마음이 곱고 선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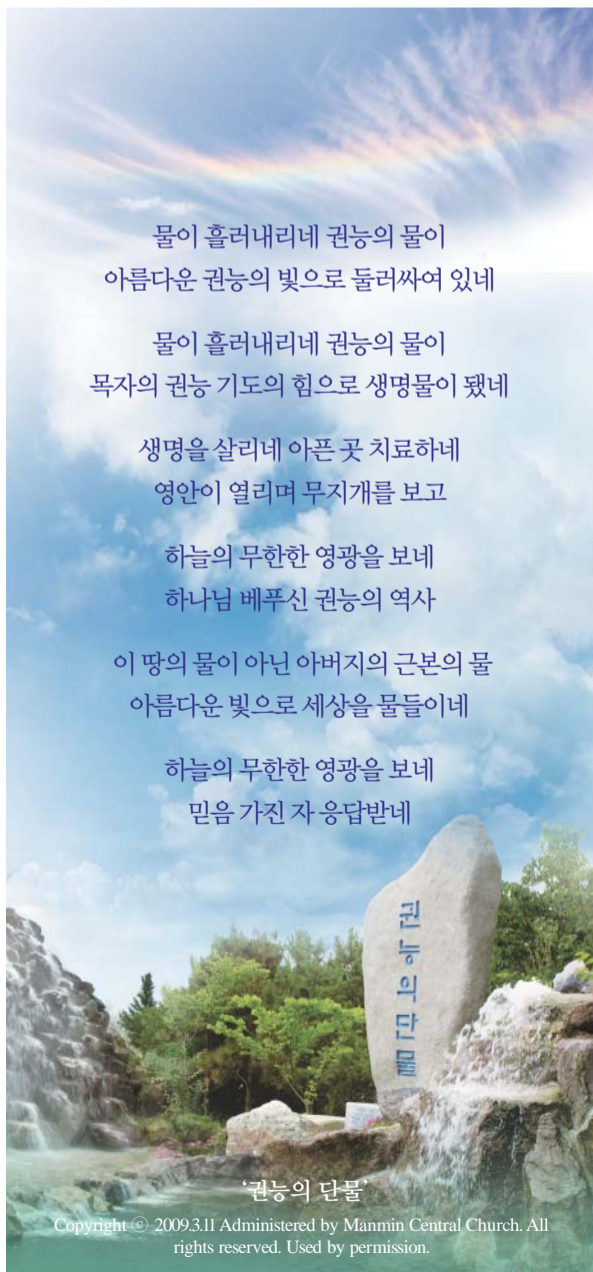
한편, 지난 2월 6일 금요일아침예배 1부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만민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주신 지 6주년이 되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기념했다.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사 43:21)이라는 설교를 통해 “이 세상 풍조나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의 권능과 생명의 말씀, 만민찬양으로 전 세계 만민을 깨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강조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네
아버지 사랑을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네
모두 외치자 아버지의 사랑을
모두 외치자 주의 크신 권능을
모두 외치자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되도록

“성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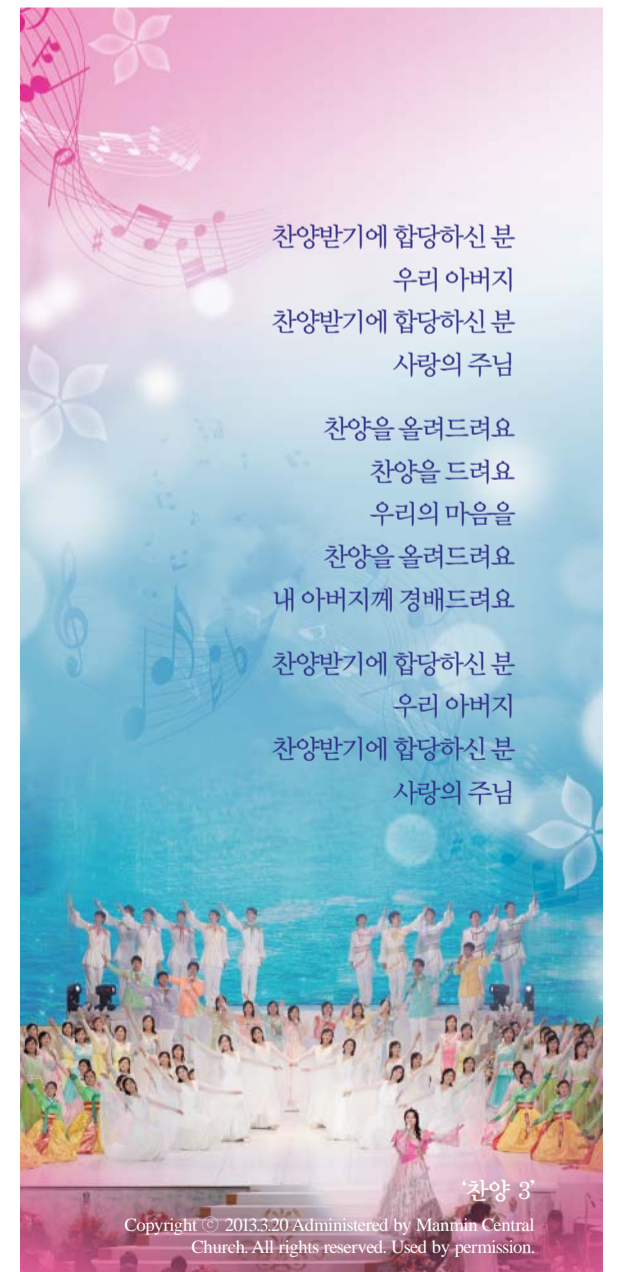
Copyright © 2009.3.25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물이 흘러내리네 권능의 물이
아름다운 권능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네
물이 흘러내리네 권능의 물이
목자의 권능 기도의 힘으로 생명물이 됐네
생명을 살리네 아픈 곳 치료하네
영안이 열리며 무지개를 보고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보네
하나님 배푸신 권능의 역사
이 땅의 물이 아닌 아버지의 근본의 물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네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보네
믿음 가진 자 응답받네

“권능의 단물”

Copyright © 2009.3.11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사랑의 주님
찬양을 올려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찬양을 올려드려요
내 아버지께 경배드려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사랑의 주님

“찬양 3”

Copyright © 2013.3.20 Administered by Manmin Central Church.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성경 66권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재창조의 권능으로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 드리기 위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6곡을 발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KOREAN) 메뉴바에서 ‘찬양’을 클릭해 ‘특송’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만민찬양을 들을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
(출애굽기 16:11~1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모세가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큰 권능을 보여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자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그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밤새 이스라엘 편에는 광명이 있는 반면, 애굽 군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다가오지를 못하게 됐지요.

그리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밤 동안 큰 동풍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처럼 백성이 홍해를 건너 후 모세가 다시 바다 위로 손을 펴자 애굽의 군대위로 순식간에 바닷물이 무너짐으로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든 여인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출 15:20~21). 애굽의 열 재앙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지만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이 사건은 정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종 모세를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간구한 하나님의 종 모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마실 물이 떨어진 데다 마라에 이르러서는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열 재앙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지만, 이번에도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오직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 먹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 만나를 주셨고, 만나에 싫증이 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어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쓴물

조차 없는 곳에서 목마른 백성이 원망하자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직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백성의 원망을 듣는 모세의 안타까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하든 믿음 없는 백성을 대신해 간구해야 했으며, 한편으로는 백성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믿음을 심어 줘야 하는 짐까지 지고 있었지요. 심지어 자기의 영혼을 담보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는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해 백성을 위해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백성은 그 동안을 참지 못하고 금송까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제사드리고 먹고 마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행에 너무 상심하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롭고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출 32:32). 이토록 절박한 모세의 간구를 외면하지 못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습니다.

3.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해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역사를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갖지 못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서운케 했습니다(시 78:40). 그때마다 모세의 믿음으로 고난을 면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모세를 불의하다고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지요.

가령,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자 모세의 누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모세의 잘못을 책망할 권세가 있다고 했지요(민 12: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집에 충성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종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니 미리암에게 즉시 문둥병이 나타났지요.

이윽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제서야 미리암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능을 나타내신 이유

이처럼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끊임없이 시험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장성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또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녕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할례해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셨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성결한 처소 곧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지요.

이처럼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려면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정녕 마음 중심에서 믿으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감사하고 기뻐하며 믿음의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침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애굽 왕 바로는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장자의 재앙 후에는 오히려 출애굽하도록 재촉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도 육십만이었으며, 이 외 중대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함께했습니다(출 12:38).

그러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이 여정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만일 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였다면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었을런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보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잠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애굽의 바다가 특별 병거 육백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그들을 추적해 오는 참으로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출 14:7).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Japan



“인터넷 게임중독에서 벗어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요”

하야시 요우코 자매 (24세, 일본 동경 타바타만민교회)



▲ 예전의 자신처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고 어학을 공부하고 있는 하야시 요우코 자매.

저는 2008년에 어머니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안 뒤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오락을 취하고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살았지요. ‘구원받아 낙원 정도는 들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영적으로 게으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것이나 문란한 것들을 계속 보고 쾌락을 좇아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건전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인터넷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부정적이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없었고 친구들도 잘 생기지 않으니 어느덧 부정적인 틀 안에 제 스스로를 가둬 버린 것이었지요. 사람에게 대해 적의를 가지는 차가운 마음이었습

니다. 인터넷 게임만이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제가 있을 곳이 없어지는 것 같아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지요.

201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진도가 9.0이나 되는 큰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TV나 인터넷의 기사와 영상을 본 저는 며칠간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허무하며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그야말로 한 순간에 사라졌습다. 저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게 됐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성결의 복음도 아는 제가 사람들에게 이복된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오열이 납니다.

그 뒤 꿈을 꾸었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누워 있는 쪽으로 오셔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아직 이른 시간이야, 좀 더 쉬렴.’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당회장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아주 행복했고, ‘이대로 살아가는 안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게임이

나 애니메이션을 지우고 매일 1분이라도 기도하고,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를 열심히 듣고 메모하며 기도해 갔지요.

2013년 3월부터는 동경 타바타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경태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됐고, 평일에도 주일이 기다려질 정도였지요. 이제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목자와 함께 세계를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영어,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지요. 영적 말씀도 사모해 읽어, 중국어로 출판된 당회장의 신앙서적도 거의 다 읽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이닝 찬양팀 리더와 청년선교회 총무 사명 등을 감당하며 포토샵으로 청년선교회 소식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처럼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Philippines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마약 중독에서 해방됐습니다”

레이 돔돔 성도 (40세, 필리핀 세부만민교회)



▲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마약의 수렁에서 해방된 레이 돔돔 성도(오른쪽 두 번째)와 아내(왼쪽 두 번째), 그리고 세 자녀.

저는 열아홉 살 때부터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셨습니다. 환각 상태에 빠지면 어느새 피곤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잘 사는 듯했지만

저는 술과 마약을 사야 했기에 아내에게 월급 전액을 생활비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움이 잦았고, 아내는 제가 술과 마약을 끊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내는 2011년 11월부터 세부만민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도 2012년 1월 16일, 가족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 놓게 됐지요. 하지만 저는 나쁜 습관들이 여전했고, 이것들이 없으면 제 삶이 아주 지루할 것만 같았습니다. 2014년에는 거의 6개월 동안 예배도 드리지 않았지요.

제 상황은 점점 악화돼갔고, 마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이 아주 지쳤습니다. 2014년 12월 쯤에는 사용하던 마약을 살 수 없어서 다른 것을 구입해 마셨는데, 머리가 떨리고 입에서 거

품이 나오기 시작했지요.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도 제 증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제 모습에 당황했고, 다급해진 저희 가족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고자 교회에 갔습니다.

성숙 담임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제 마음은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마약과 술 등의 나쁜 습관들을 한꺼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을 얻었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저희 가정은 화목해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늪에서 저를 건져내시고 새 생명을 주신 목자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15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2월15일~2월21일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하나님의 선
 - 생명의 씨 1-3
 - 공간과 차원 1-5
 - 민음의 분량 1-5
 - 요한일서 강해 4-8
 - 요한계시록 강해 58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2-4
 - 일곱 영 2-3
 - 창세기 강해 1-2
 - 아름다운 성전
 - 재창조의 권능

- GCN TV설교**
-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3 (이수진 목사)
 - 영의 세계 29 (이희선 목사)
 - 생명수 2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8 / 열 재앙 9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4 (김수정 목사)
 - 두루마기를 빼는 자 (김승신 전도사)
 - 때에 맞는 말 (이미영 목사)
 - 영의 세계 29 (이희선 목사)
 - 생명수 21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28 / 열 재앙 9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4 (김수정 목사)
 - 두루마기를 빼는 자 (김승신 전도사)

-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6
 - 몽도 튼튼 마음도 튼튼 21
 - English 13
 - 옛날 옛적에 9
 - 흥겨운 소리 1
 - 모두 드려요 23
 - 즐거운 요리 25
 - 플로리스트 14
 - 창조와 과학 5
 - 만민 지킴이 8
 - 내 마음의 찬양 6
 - 뷰티풀 라이프 9

- 해외성회 및 교육**
- 회상 26
 - 필리핀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1-2
-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제 삶이 180도 변화됐습니다”

1984년 1월, 아침 구보를 하던 중의 일입니다. 15톤 덤프트럭이 덮치는 대형 사고를 만나 도로 위를 구르던 제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목숨이 한순간에 끊어지는구나!’ 싶었지요. 그 순간 ‘하나님! 살려 주시면 교회 다니며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일 후 그해 7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선데이 크리스천에 머물렀습니다.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주시는 약주를 마시며 성장했기에 저는 술을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즐거움 중에 하나였지요.

1989년,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싸움도 잦았고, 아내를 때리는 일도 있었지요. 사랑스러운 세 딸을 낳은 후에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부부가 미워하고 다투며 원수처럼 느껴졌지요. 결국 알코올 중독 증세에 위장장애까지 왔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시시비비하고 험기를 내거나 감정을 품는 등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지요.

1993년에는 사업(중앙브레인-수납 시스템 개발회사)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부진하니 점점 빛만 늘어갔지요. 재정적인 압박에 되는 일이 없으니 매사에 의욕이 없고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겹쳤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사업으로 인해 교회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출석했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매일 “하나님! 술 마시고 죄 짓고 죄송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살아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며 사람답게 살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

그러던 중, 나설현 집사님의 인도로 만민중앙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금요일야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 전에 상영하는 만민매거진을 통해 ‘2002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시청하게 됐지요. 연인원 300만 명 이상이 모인 성회 장면은 감동 자체였습니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셨는데,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 음성은 마치 우레와 같은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살아 있는 교회로 인도하셨다는 확신이 들어 주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때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자를 선물로 받았지요.

당회장님의 간증수기를 읽은 저는 참 목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한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은 비진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임을 깨우치게 됐지요.

뿐만 아니라 술, 담배는 물론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며 알코올 중독과 위장장애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찬양이 좋아지니 가요, 팝, 클래식 음반 2천여 장을 버리고 매일 밤 성전에서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삶에 영육 간의 축복이 넘쳐

이처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사업터에도 축복이 임했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업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 계약도 잘 이뤄지고 일감이 늘어났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아내와도 온전히 화평하지 못한 일을 떠올려 주시며 통회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온 지 1년 만에 기관장이 됐고, 그 후 선교회 조장 및 부회장, 교구 조장, 대대교구 총무 조장에 이어 조장연합회 부회장의 사명이 주어졌지요. 열심히 사명들을 감당하며 지내던 어느 날, 진정 중요한 것은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나고 영으로 일하며 지내야 함을 깨우치며, 나는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엄한 부모님 슬하에서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나 용서, 이해, 양보보다는 옳고 그름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내성적인 데다 자존심도 강했지요. 그래서 금식기도와 더불어 회개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사모하며 부지런히 나를 깨뜨려갔지요.

또한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해외성회 때마다 금식으로 동참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3월 31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

이처럼 변화된 제 모습을 보며 대장암 함양 치료를 받던 큰 누님이 곧바로 우리 교회에 나와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막내 누님도 전도돼 역장에서 진급해 150개역을 총괄하는 승진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또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때 귀한 제단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행복이 넘치지요. 저를 만나 주시고 치유해 주심은 물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성품도 바뀌며, 각종 질병과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만민중앙교회에 와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과 함께한 신행철 장로 (56세, 2대대 15교구)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